



4》 리포트, 한번 가면 함흥차사?



5》 열악한 체육 인프라

2015학년도 2학기 최종등록 안내(졸업유예자)

기간 : 2015.9.16.(수)~2015.9.21.(월) 수납처 : 하나은행 전국지점
납부방법 : 1)가상계좌를 이용한 납부
2)인터넷뱅킹을 이용한 납부
3)은행 직접 방문 납부

취업률 50.9%, '절반 취업' 고착화되나

진학률은 10% 밀돌아 … 취진처, “우리학교 구성원 모두 취업에 대한 관심 적다”

대학알리미 8월공시 분석

방누리 기자 nurib423@khu.ac.kr

우리학교 양 캠퍼스 취업대상자 4,590명 중 2,337명이 취업해 취업률 50.9%를, 졸업자 5,575명 중 552명이 진학해 진학률 9.9%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달 31일 대학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 (www.academyinfo.go.kr)에 공시된 ‘2015년 졸업생의 취업 현황’과 ‘2015년 졸업생의 진학률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지난해 취업률인 50.6%보다 0.3%pt 증가했지만 최근 3년간 추이를 살펴봤을 때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특히 (2015 서울 주요 경쟁대학 취업률)과 비교해 보면 가장 높은 성균관대(68.3%)와 격차가 17.4%pt나 벌어져 있어 소폭 오른 취업률에 의미를 부여하기 힘든 상황이다.

폐과가 되거나 졸업자 수가 적은 국제·경영대학과 의과대학, 동서의 과학과 등을 제외한 21개 단과대학별 취업률을 살펴보면 양 캠퍼스 통틀어 한의과대학이 89.1%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반면, 음악대학은 9.7%로 가장 낮았다. 국제 캠퍼스(국제캠)는 전자정보대학이 68.0%로 가장 높았고, 생명과학대학이 31.3%로 가장 낮았다.

성비로 분석한 우리학교 취업률은 남학생 55.1%, 여학생은 46.6%인 것으로 나타났다. 21개 단과대학 중 법과대학과 전자정보대학, 예술·디자인대학과 체육대학 등 4개 단과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단과대학에서 남학생 취업률이 더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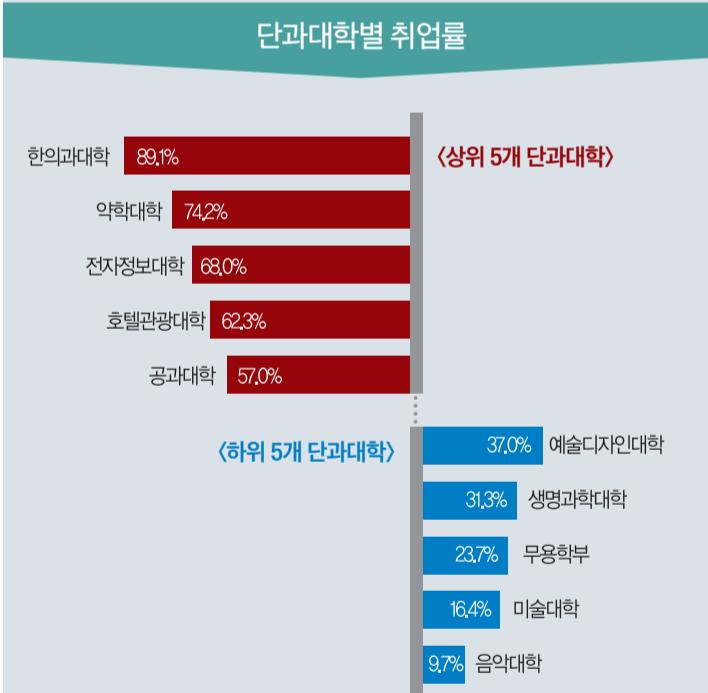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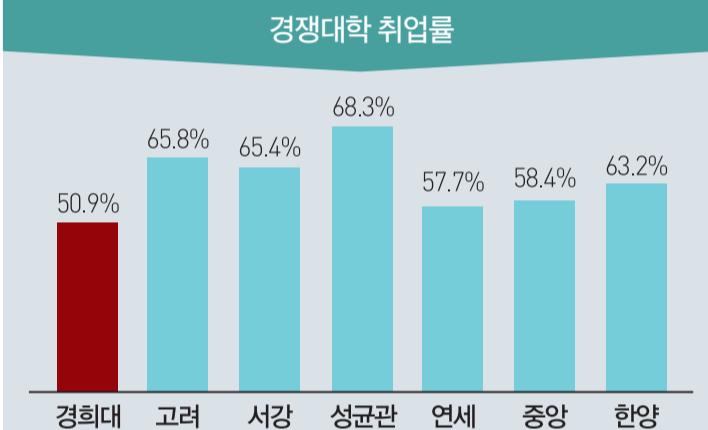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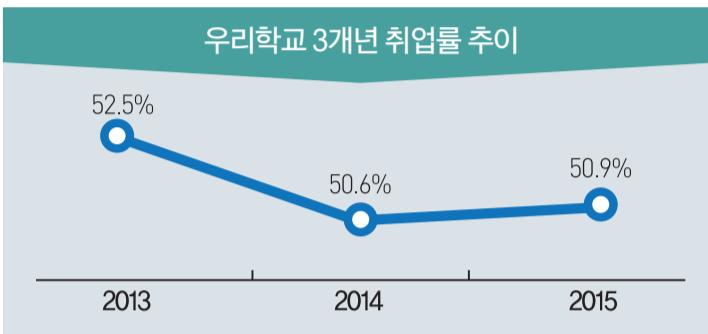
저조한 취업률의 원인으로 줄곧 언급되는 문제들은 예체능계열과 여학생의 졸업자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하지만 낮은 취업률의 원인을 예체능계열과 여학생 졸업자 비율로 돌리는 것은 지난 2013년부터 지

난해까지 우리 신문에서 절대적인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밝혀왔다. 프리랜서나 1인 활동이 주를 이루는 예체능계열의 취업률 저조는 우리 학교 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의 공통현상이라는 점과 여학생이 100%인 이대·숙대와 우리학교를 비교했을 때 차이가 미미하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양 캠퍼스 취진처 모두 위와 같은 원인들보다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취업에 대한 관심 부족’을 꼽았다. 서울캠퍼스 취진처 한상백 팀장은 “타 학교에 비해 우리학교는 교수, 학생, 구성원 모두 취업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다”며 “타 대학의 취업 지원부분이나 관련행사를 듣다보면 ‘취업’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와는 다르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국제캠 취진처 정현향 계장 또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지만 학생들이 스스로 움직여야 시스템도 쉽게 바뀔 수 있다”며 “요구가 많으면 점점 더 지원 프로그램이 탄탄하고 풍족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우리학교의 진학률 역시 지난해 10.8%에서 0.9%pt떨어진 9.9%다. 이는 서울 주요 경쟁 대학들이 2~30%를 웃도는데 반해 크게 뒤떨어지는 수치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약학대학이 31.3%로 가장 높고, 응용과학대학(28.1%)과 무용대학(25.0%)이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단과대학은 간호과학대학으로 0.6%였으며, 호텔관광대학(1.8%), 정경대학(1.9%), 경영대학(1.9%) 등이 2% 미만을 기록했다.

전반적으로 이·공계열 단과대학의 진학률이 높고, 인문·사회계열이 진학률이 낮았다. 진학률만으로 학생들의 학구열을 평가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진학률이 대학 교육성과의 대표적 지표인 만큼 이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인류문명 핵심개념 <사회계약 Social Contract>

후마 - 대학주보 공동기획 인류문명을 만든 핵심개념 ②

이기라 후마니티스 칼리지

우리는 왜 권력에 복종하는가? 우리는 왜 특정한 정치적 질서에 따라야 하는가? 사회계약은 한 사회에서 권력이나 위계, 또는 정치질서가 그 사회의 구성원들의 동의와 약속으로부터 나왔다는 생각이다.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이 사회를 이루면서 일정한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위계적인 정치질서를 구성하는 가상의 협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

회계약론자로는 17세기 영국의 토마스 휴스와 존 로크, 그리고 18세기 프랑스의 장 자크 루소를 꼽는다. 그들은 인간의 합리성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정치권력의 정당성의 기초를 새롭게 세우고자 했다.

동의에서 나온 권리

개인은 왜 권리에 복종하나?

사회계약론자들의 주된 고민은 “어떻게 신의 섭리가 아니라 인간의 이성에 기초하여 정당한 정치적 질서를 세울 수 있을까?”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기존의 종교적이고 봉건적인 질서로부터 인간에 기초한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한 출발점으로 ‘자연 상태’를 가정한다. 자연상태는 모든 개인이 독립적이고, 자유롭고 평등하며, 그들을 강제하는 어떠한 권력이나 사회적 규범도 없는 상태이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을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평등한 개인으로 상정하는 순간 새로운 문제가 생긴다. 즉 자연상태에서 모든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하며, 어떠한 사회적 규범이나 제도도 없다면, 권력과 지배구조는 어떻게 생겨나는가? 다시 말해서 무엇이 자유로운 개인들로 하여금 정치권력을

에 복종하도록 하는가? 이 물음에 대해서 사회계약론은 자유로운 개인들의 협약이라는 이론적 해법을 제시한다. 이 협약이라는 생각을 통해서 정치질서나 권리관계는 자연적이거나 신이 부여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의 결과로 파악된다. 그렇다면 자연상태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이 왜 위계적인 권리관계를 구성하는 계약을 맺을까? 이 계약의 목적, 나를 포함한 공동체 구성원 전체가 이 계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뭘까?

▶7면으로 이어짐

Newsmaker

청년의 이야기 전하는 절망라디오
리포터 신소진 (정치외교학 2013)양



“우리 목소리로 우리 일을 말하고 싶다”

박기윤 기자 kyooin7230@khu.ac.kr

교육부의 ‘대학별 자살자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대학생의 자살률이 60% 상승했다고 한다. 우울증과 학업, 진로문제 등의 이유로 세상을 등지는 대학생의 증가는 흔히 ‘N포 세대’라 불리는 청년 세대가 얼마나 힘든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청년의 이야기를 기성세대의 입이 아닌 청년의 입으로 말하자는 ‘절망라디오’가 지난 8월 첫 방송을 시작했다. ‘절망 라디오’에서 리포터로 활동하고 있는 신소진(정치외교학 2013)양을 만났다.

“우리들의 노력을 우리들의 입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매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신 양은 “기성세대가 말하는 청년의 아픔은 큰 의미가 없다”며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고민하고 싶었다”고 절망라디오의 설립 취지를 말했다. 절망라디오는 ‘안 망한 사람 나와라’, ‘참망했어요’ 등의 표어로 대학생의 아픈 사연을 받아 함께 이야기하고 공유하는 팟캐스트 방송으로, 지난 달 22일 첫 방송을 내보냈다.

절망라디오는 청년의 사연으로 만들어지는 방송이므로 많은 이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물론 리포터들과 방송 관계자는 컨텐츠 계발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는 신 양은 “부스가 보이면 가끔씩 와서 설문조사도 해 주시고, 공유하고 싶거나 털어 놓고 싶은 사연이 있으면 이야기 해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신 양은 “지금 청년은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그러한 노력을 우리들의 입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매체가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만든 만큼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절망 라디오 듣기

www.podbbang.com/ch/9988

알림

대학주보 SNS로 더 다양한 대학주보를 만나보세요!

f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khunews>

o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khunews/>

p 페터스트 <https://www.pinterest.com/daehakjubo/>

y 유튜브 ‘대학주보’

https://www.youtube.com/channel/UC8t9_LCfmJ7dxw4THjUR0YQ

g 구글플러스 ‘경희대 대학주보’

<https://plus.google.com/u/0/108802383036836051070/posts>

칼럼

먹방의 윤리학

최태섭 문화 ‘불평’ 가 ▶7면



기획

“점수만 받으려 듣는 강의 아냐”... “성실한 첨삭 안되나요”

학생들의 과제 피드백 요구

황경선 기자 sunny96@khu.ac.kr

강수현(영어학부 2015)양은 지난 학기 성적표를 받아보고 어안이 벙벙했다. 나름대로 열심히 수강했다고 생각한 강의에서 불만족스러운 성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30장이 넘는 레포트 과제도 정성을 다 해 작성했고 시험 때는 답안지의 앞 뒷장을 꽉꽉 채워 냈기에 내심 좋은 성적을 기대했던 터였다. 열심히 한 만큼 배운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에 적잖이 당황했다. 각 과제에 대한 피드백을, 아니면 중간고사 때라도 피드백을 받았다면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 더 나은 결과를 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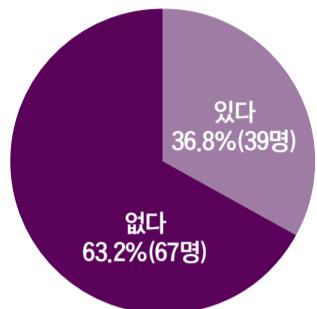
강 양의 사례처럼, 학습과정에서 교강사로부터의 피드백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우리신문이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우리학교 학생 1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수업 중 제출한 과제물과 시험 답안에 대한 피드백을 교수/강사로부터 받아본 적이 있나?’라는 질문에 ‘있다’고 답한 비율은 36.8%(39명)에 그쳤다.

시간과 인력의 부족, 과제 피드백 어려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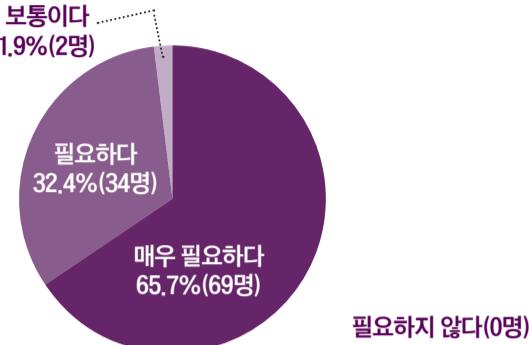
교강사로부터의 피드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교강사들은 ‘시간과 인력의 부족’을 이에 대한 원인으로 꼽았다. 한 강의 당 적으면 30명에서 많으면 100명 가까이 되는 학생들의 과제를 일일이 첨삭해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또 교강사들에게 부여되는 여러 연구활동 및 학내외 봉사활동 등에 대한 책임 역시 피드백을 해 주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교수는 조교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이 나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겠지만, 역시 현실은 녹록치 않다. 교수의 연구 실적 등에 따라 배정되는 조교의 수가 달라지지만 예산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교수 1인 당 조교 1명이 배정된다. 때문에 설령 조교와 함께 피드백을 진행한다고 해도 고작 두세 명이 수십 명 학생의 과제를 상세하게 첨삭해야 한다는 것인데, 교수 한 명이 보통 한 학기에 2~3개의 강의를 맡고 여러 연구활동을 진행한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쉽지만은 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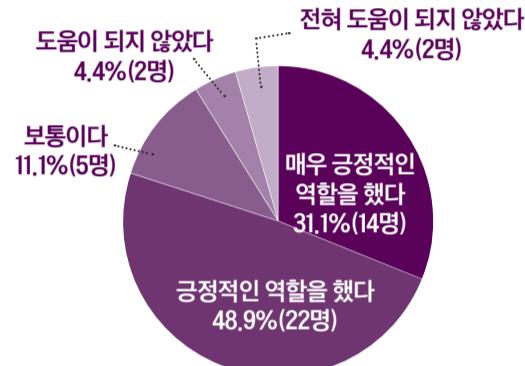
Q. 수업 중 제출한 과제물과 시험 답안에 대한 피드백을 교수/강사로부터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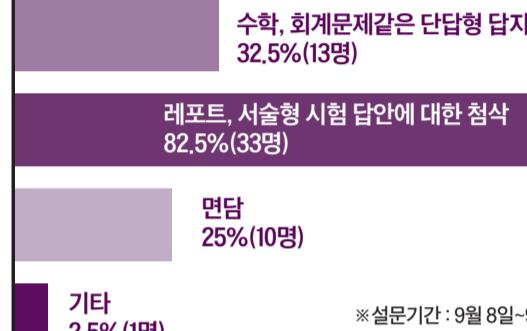
Q. 교수자로부터의 피드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피드백이 학업 성취도에 어떤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십니까?



Q. 어떤 종류의 피드백이었습니까?(복수 응답 가능)



※ 설문기간 : 9월 8일~9월 11일
설문대상 : 학생 112명
설문방법 : 인터넷설문

은 일이다. 사실 조교와 함께 피드백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조교를 두고 있는 모 교수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물론 조교들이 대학원생이니 학부생보다는 전문적 지식이 많은 편이지만, 어쨌든 학생이기 때문에 이제 막 학문을 시작하는 학생들의 과제 첨삭을 조교에게 맡기기는 애매하다. 단답형 문제 채점은 조교가 해주기도 하지만 레포트 첨삭은 이런 이유로 직접 하는 게 적절하다. 그렇지만 혼자 모든 분량을 감당하기 어려워 신청한 학생에 대해 첨삭을 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피드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서 ‘교수자로부터의 피드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98.1%에 해당하는 103명의 학생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이다. 대다수 학생들이 피드백을 받지 못하는 것에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왜 학습 과정에서 피드백을 원하는 것일까. 많은 학생들은 그 이유로 ‘학문적으로 발전하고 싶다’는 점을 들었다. 설문조사에 응한 대부분의 응답자

는 피드백이 필요한 이유를 묻는 주관형 질문에 ‘고쳐야 할 부분을 지적해주시지 않아서 어디가 잘 못 된지 몰라서 답답했다’고 답했다. 특히 한 응답자는 ‘단순히 점수만 받아 듣는 강의가 아닌데 과제나 시험에 대한 피드백이 없으니 시험을 위한 시험을 보는 느낌’이라며 ‘4학기 째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어느 수업에서도 개인별 피드백을 해 주신 교수님이 없었다’고 답했다.

실제로 피드백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반응도 높았다. 설문조사 결과 피드백을 받아봤다고 응답한 39명 중 36명 (80%)이 ‘피드백이 학업성취도에 어떤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답했다.

시민교육 수업에서 개인별 상세 피드백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는 김예영(철학 2014)양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교수님께서 과제물에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직접 써서 돌려주었다. 이 수업을 통해 글 쓰는 것에 대한 조언을 많이 얻었다. 그동안 내가 몰랐던 좋지 않은 소소한 글쓰기 습관들을 지적해주어 좋았다”고 말

했다.

학생들의 과제와 시험에 대한 피드백 요청은 비단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다. 지난 2006년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학생회는 ‘과제 돌려받기 운동’을 진행한 바 있다. 과제물을 제출할 때 ‘교수님, 과제를 꼭 돌려받고 싶습니다’라고 적힌 스티커를 맨 앞장에 부착하면 교강사가 첨삭을 해서 돌려주는 운동이었다. 이후 이 운동의 취지에 공감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대학가에 ‘과제 돌려받기 운동’이 퍼져나갔다.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학생회와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학생회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에는 한계점도 있었다. 한 강의 당 수강생 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점과 채점 인력 부족 등의 현실적인 문제로 큰 성과는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학교에서도 학생들의 피드백 요청이 캠페인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학기부터 서울캠퍼스 후마니타스 칼리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수님의 빨간 펜’이라는 캠페인이다. 후마니타스 칼리지 대학생 위원회가 주관하는 이 캠페인은 지난 학기에 10개

강의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만족도 조사 결과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은 이 캠페인은, 이번 학기에는 15~20개 강의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이 캠페인은 교강사가 해당 강의의 학생들에게 과제와 시험을 첨삭해서 돌려주는 형식이다. 후마니타스 칼리지 대학생위원회 황선경(정치외교학 2011) 회장은 “학생들이 교양수업에서 많은 양의 과제를 제출 하지만 과연 자신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이런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며 “좋은 취지의 활동이기 때문에 점차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피드백에 대한 학생들의 요청이 집약돼 나타난 ‘교수님의 빨간 펜’ 캠페인이 타 대학들의 전철을 밟으며 구호로만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한 강의 당 학생 수 축소, 한 전임교원 당 조교 배정 수 확대 등 현실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교강사의 과제 피드백, 학문적 발전을 위해 필요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높아 보인다. 학사지원과 측은 이 문제에 대해 “한 강의 당 수강생 수를 임의로 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며 “강의 특성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 어쩔 수 없다”고 설명한다. 조교 수 문제에 대해서도 교무과 측은 “이미 우리학교는 타 대학에 비해 조교지원을 잘해주는 편에 속한다”며 “조교지원도 등록금으로 하는 것인데 현 상태에서 더 늘리면 그만큼 학생들에게 부담이 갈 수밖에 없다”고 답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과제가 ‘점수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닌 ‘학문적 발전을 위해 수양하는 것’이 되려면 학습 피드백이 활발히 일어나야 할 것이다. 학습 피드백은 학생들의 수업환경에 큰 축을 담당하는 부분이라는 점에 학교 측도 공감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더불어 학생들의 인식 개선도 요구된다. 의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학생들이 때때로 피드백을 부담스러워하기도 한다”며 “피드백을 해주는 것이 부족함을 꼬집으려는 게 아니라 개선 방향을 일리로 여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노력들을 통해 학습 피드백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대학이 교수와 학생이 함께 발전하는 학문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9월 셋째 주(9.14~9.18) 취업진로 프로그램 안내 “미래는 준비된 자의 세계”

■ 캠퍼스 리크루팅(기업체 채용설명회 및 면담)

행사 명	일 시	장 소
현대백화점/현대홈쇼핑 채용설명회	9.14(월) 12:30~14:30	청운관 1층 B117호
IBK기업은행 채용면접	9.14(월) 10:00~18:00	청운관 1층 상담실
IBK기업은행 채용설명회	9.14(월) 15:00~17:00	온라인 채용 111호
파리다이너스 호텔 부산 채용설명회	9.14(월) 16:00~17:30	중앙도서관 1층 시청각실
빙그레 채용면접	9.15(화) 10:00~17:00	청운관 1층 상담실
골프존 채용면접	9.15(화) 10:00~17:00	청운관 1층 상담실
SK네트웍스 채용면접	9.16(수) 10:00~17:00	청운관 1층 상담실
CJ 채용설명회(푸드빌, 오쇼핑)	9.17(목) 14:30~16:30	청운관 B117호
CJ 엔터테인먼트 채용면접	9.17(목) 16:00~18:30	청운관 1층 상담실

* 위 일정은 기업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참가부분 : 경희대학교 재(재부)상 및 졸업생 누구나 사전신청 없이 참석 가능(시작 시간 5분전까지 척석)

* 기타 사항은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공지사항 및 취업진로 지원자 카페)를 참고해주세요.

* 채용설명회 관련 출석증(증명)은 각 채용설명회 종료 후 현장설명회장 입구에서 발급, 배부

■ 특강

특강 제 목	일 시	장 소
합격하는 저수준 1 (배상복 교수님)	2015.09.16.(수) 13:00~15:00	청운관 B117호
금융권 취업상담 (송승영 교수님)	2015.09.16.(수) 17:00~18:00	네오관 104호
외국계기업 취업 프로세스 (전은명 교수님)	2015.09.18.(금) 17:30~19:30	청운관 B117호

■ 취업진로지도사 맞춤 컨설팅(취업상담)

- 대상: 경희대학교 학부 대학생 출연생
- 상담 내용: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작성법, 면접스킬 지도, 기업 및 직무 분석법, 로스쿨 진학 등
- 상담 내용: 출연생

상담유형	컨설턴트	일 시	장 소	신청방법
취업 상담	봉사별 컨설턴트 4명	월 ~ 금 (각 컨설턴트별 일정 상이함)	오피스 B107~B266 제2법 107~2호	중한정보시스템 ‘수업/설계/상담’ ‘수업/설계/상담’ ‘수업/설계/상담’ ‘수업/설계/상담’
On Line Off Line 상담 (취업지원팀)	상 시	On Line (hanseb@knu.ac.kr) Off Line (취업진로지원처)	온라인 확인 후 신청	

* 상담 신청자 의무사항: 취업준비도 검사 참여(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이하에 ‘이곳’) 상담 전 후 각 1회(총 2회) 참여)

* 주의사항: - 상담 당일 낮 취업설명회(상당수) 참석 가능, 취업설명회(상당수)

-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한 경우 당일 부여 부록 프린트해서 이지(필수)

- 자세한 사항은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공지사항 및 출연생)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http://job1.knu.ac.kr

페북 링크: https://www.facebook.com/khujob

위치: 청운관 1층 학생생활지원처

서울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2015 하반기 분야

설자리 잃는 체육 공간... 체육부·동아리 공간 찾아 외부로

열악한 체육 인프라

강경진 기자 cocoandlisa@knu.ac.kr

【국제】운동공간 부족으로 우리학교 학생들의 체육 인프라가 축소됐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근본적인 공간 부족 문제로 체육부 선수들은 훈경기를 외부에서 치르기도 했고 운동 동아리들은 존폐 기로에 서기도 했다. 또한 시설 노후화와 외부 대여로 인해 학생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축구부와 럭비부는 운동장 사정 때문에 외부에서 훈경기를 치르고 있다. 우리학교는 멀티미디어관 앞 천연잔디구장과 전자정보대학 뒤에 흙으로 된 운동장 두 개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천연잔디구장은 잔디 재생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관리가 까다로워 일반 학생뿐만 아니라 축구부도 사용에 제약을 받고 있다. 매년 전반기의 잔디구장은 거의 폐쇄 상태다.

축구부, '외부'에서 훈경기 치뤄

사실상 '어웨이' 경기를 치르는 셈

축구부는 지난 '2014 카페베네 U리그 대학선수권 텁파언십' 대회에서 단 한 번도 우리학교에서 훈경기를 하지 못했다. 올해 '2015 카페베네 U리그' 전반기 4경기도 마찬가지였다. 우리학교의 훈경기는 '용인시 축구센터'에서 열리고 있어 사실상 '어웨이' 경기를 치르고 있는 셈이다. 축구부 유진석(스포츠지도학 2014) 선수는 "흙에서 학생들의 힘성소리를 들으며 경기할 때 가장 힘이 나는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선수들의 훈련은 축구장이 아닌 공과대학 앞 필드하키장에서 진행된다. 필드하키장은 인조잔디구장으로 축구부 훈련에는 적합하지 않다. 특히 필드하키장 특성상 축구화를 신을 수 없어 실전 감각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학교처럼 천연잔디구장을 보유하고 있는 영남대는 천연잔디구장 뿐만 아니라 인조잔디구장까지 보유하고 있다. 특히 인조잔디구장은 일반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개방하고 있다. 영남대 최현우(건설시스템공학 2014) 군은 "교내에 운동장이 개방돼 원하는 시간에 편하게 운동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럭비부 또한 천연잔디구장 사용 불허로 지난 '2015 코리안 럭비 리그' 대회 훈경기를 고려대에서 치렀다. 우리학교는 1부 리



① 인공암벽장은 시설 노후화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② ③ 운동공간 부족으로 전자정보대학 뒤 럭비장에서는 럭비부 훈련과 야구 동아리의 야구습이 함께 이뤄지고 있다.

그에 속한 4개 대학의 팀 중에 유일하게 인조잔디구장이 없다. 럭비부는 흙으로 된 운동장에서 훈련해 부상의 위험이 크다. 게다가 흙바닥은 충격흡수가 미미하고 표면이 거칠어 선수들은 더 큰 부상 위험에 노출돼 있다. 럭비부 한상훈(스포츠지도학 2012) 주장은 "우천 등 기상악화 시에는 흙으로 된 운동장을 이용할 수 없어 날씨가 훈련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체육부 뿐만 아니라 운동 공간 부족은 일반 학생들과 운동 동아리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우리학교의 다양한 운동 동아리들은 운동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동아리가 없어지거나 외부 시설을 통해서 운동을 하고 있다.

축구 동아리는 교내에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중앙동아리 '아마축구' 윤성식(체육학 2014) 부회장은 "학교 내에 축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해 외부로

나가 운동을 하곤 한다"고 말했다. '아마축구'는 지난 학기까지 매주 월요일은 핸드볼장, 목요일은 필드하키장에서 정기적으로 운동을 했으나 이번 학기는 그마저도 여의치 않았다. 필드하키장에 조명이 설치되지 않아 어두운 겨울철 사용이 위험해졌기 때문이다. 그로인해 매주 2회 진행되던 훈련은 1회로 줄었다. '아마축구'는 회비를 모아 외부 풋살장이나 운동장을 대여해 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테니스 동아리는 동아리 '서비스'의 관리 하에 주말에도 테니스장을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5년도에 접어들면서 주말 코트 사용을 금지한다는 일방적 '통보'를 받았다. 체육대학 측에서 '경희 테니스 아카데미'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단과대학 야구동아리들은 운동 공간 부족으로 동아리 존속에 위기를 맞기도 했다. 야구동아리들은 2년 전 야구장 보수공사

전까지는 비교적 자유롭게 야구장을 이용했다.

하지만 보수공사 이후 관리를 담당하는 체육부 측에서 새로운 야구장을 외부에 대여하거나 교내 행사를 진행해 정기적으로 야구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단과대학 야구 동아리 간에 진행됐던 '글로벌 리그'는 2년 전 8팀에서 5팀으로 줄어든 상태다. '글로벌 리그' 회장을 맡고 있는 전자정보대학 야구동아리 슈퍼스타즈 박상교(전자·전파공학 2011) 회장은 "지난 학기 외부 대여사업으로 야구장을 못 빌리는 경우가 많아 매학기 진행되던 '글로벌 리그'도 진행하지 못했다"며 "정기적으로 게임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동아리 운영의 의미와 목적이 희미해지고 신입생도 들어오지 않아 운영 자체가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회장은 "이번 학기에는 야구장을 정기적으로 대여받았지만 이미 인원이 줄어들어 부족한 사람으로 경기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간이 진행되던 단과대학 경기도 인원이 부족해 중앙동아리 '라이온스'와 연습게임을 하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아리 존속에도 영향 미쳐 시설대여 시스템화 필요

한편 체육대학 2층의 인공암벽장은 노후화로 방치돼 현재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다. 일반 인공암벽장이 3~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인공 훌더(손잡이)를 세척하는 반면 우리학교 인공암벽장은 관리에 소홀했다. 이로인해 인공 훌더의 마찰력이 줄어들었고 지난해에 결국 안전상 폐쇄됐다. 2014년 1학기까지 진행되던 '인공암벽등반(기술사프로그램)' 수업도 폐강됐다. 산악부 이범희(한양학 2009) 전 대장은 "인공 훌더를 세척하면 학교에서 인공암벽장을 사용할 수 있지만 보수 일정도 잡힌 것 같지 않아 막막하다"고 말했다.

체육부 김도균 부장은 "운동 공간은 체육대학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단과대학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지만 체육대학의 예산만으로 관리가 이뤄져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부장은 "운동 공간을 일반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개방하면 경기장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아 관리하는 입장에서 신중할 수밖에 없다"라며 "시설 대여에 관련해서 시스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2015년도 대학직장 예비군 향방기본 보충훈련 안내(공고)

● 훈련대상 : 2015년 향방기본훈련 불참 및 연기자, 2학기 복학자 중 향방기본훈련 대상자
● 장소 : 광주예비군훈련장
● 일정 :

훈련명	훈련일자	대상
향방기본	9. 30(수)	2시간 이하 대상자
보충훈련	10. 2(금)	3시간 ~ 8시간 대상자

* 훈련명수 : 첨부파일 참조

● 이동방법

가. 단체이동 : 대형 전세버스 이용 출발 및 복귀

나. 출발장소 / 시간 : 청운관 앞 도로 / 당일 07시 05분 출발

● 개별이동

1) 시내버스 : 30번(청량리/휘경동), 23번 / 1~4번(천호동), 93번(강변역)

2) 전철 : 중앙선 도농역 2번 출구 버스중앙차로 정류장에서 위의버스로 환승

3) 개인차량 : 익도첨조

● 참고 및 유의사항

가. 훈련장에서 훈련되는 휴대폰 문자, E-mail, 대학주보, 교내방송, 학교 / 단과대학 홈페이지, 각 행정실 세자판 등에 공고 및 공지되어, 1차 또는 2차 보충훈련 대상자는 예비군연대부에서 직접 교부

나. 훈련일자 변경은 불가하여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교 훈련일에 참가가 어려운 학생은 예비군홈페이지(<http://www.yebigun.mil.kr>)에서 훈일 또는 전국단위훈련을 신청·참가하여 훈련이 가능

다. 전년도 훈련 미수강자 : 9월 16일 이후 예비군 전입자는 추후 개별 보충 및 이월훈련 부과, 복정전투복, 전투모, 군화, 군용요대, 바를, 고무원불량자 훈련일스 볼가

마. 신분증(학생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반드시 지참

바. 훈련장에 반드시 09시까지 도착해야 하여 이어 도착자는 입소 불가

사. 훈련 무단抜け으로 인하여 고발/벌금형 등의 불이익처분이 유의

이. 공결처리를 원한 훈련참가 훈련자는 10월 1일부터 예비군연대부 방문시 발급함

자.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사회복지 금여서비스 및 금여 통지서 서류 제출시 훈련이 연재됨

나. 훈련 일정 훈련 등으로 본인 학적이 재학 중이 아닌 학생은 훈련 참석 불가

카. 2014년 9월 1일부 수업연한 초과자 출입유자격 지역편성, 병무청(동원), 지역 일반훈련 대상

수상

티. 훈련, 학사 등 정확한 정보 수신을 위해 예비군홈페이지에서 현재 사용 중인 E-mail과 휴대폰번호로 반드시 수정

파. 기타 문의사항은 청운관 1층 학생생활지원원 예비군연대부(☎961-0148~9)로 문의



찾아가는 방법

- ◆ 시내버스 이용
 - 청량리/휘경동 : 30번, 천호동 : 23-1~4번, 강변역 : 93번
- ◆ 전철 이용
 - 중앙선 딕스/용문행 [도농역] 하차 2번 출구 위의 버스로 환승
- ◆ 개인차량(내비게이션) 이용
 - 경기도 남양주시 이파동 284-1번지 or 금곡운현장/충일아파트 검색
- ◆ 행정번호
 - 221번대 : 031-595-8337(교환) 연대동과/or 또는 3대동과 검색

- ◆ 반드시 08시 50분까지 금곡운현장 부대정문에 도착
- 일시 및 장소
 - 국제C: 2015. 9. 30(수) 19:00 본관3층 대회의실
 - 서울C: 2015. 10. 1(목) 19:00 청운관 207호
- 주요내용
 - 2015학년도 입학전형계획 안내
 - 2015학년도 입시결과 설명
 - 질의응답
- 문의 :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 02-961-9218~9, [lawsch@knu.ac.kr](http://www.khs.ac.kr)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Self Design 프로그램" 지원자 모집! 스스로 필요한 활동을 디자인하고 활동비를 지원 받자~!!

경희대 입학처(국제)에서는 아래와 같이 <Self Design 프로그램>을 진행하오니 학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1. 제작 및 목적

- 가. 학생 스스로가 잠재력 개발, 인성발달, 경력 및 자기계발 등에 필요한 활동을 기획하고 설계함.
- 나. 본인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잠재력을 역량 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함.

2. 지원 자격 : 본교 국제캠퍼스 소속 재학생

- * 신입생이나 기정영문학 어려운 경우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함.

- * 활용우수자에게는 소정의 상물을 지급함.

3. 활동기간 : 2015학년도 2학기(2015.09.01~2015.12.31)

4. 활동내용 : 잠재력 개발, 글로벌 및 리더십 역량 강화, 인성발달, 기타 자기 계발을 위해 필요한 모든 활동

- * 단순 공연이거나 성적 취득을 위한 수강료, 시험응시료, 교재 구입비 등을 지양함.

5. 선발인원 및 지원금액 : 총 20명(인원 최대 20만원)

- * 경과보고서 제출(2016. 01. 01 ~ 10/일)에 차이가 있어야 함. 활동영수증은 반드시 첨부해야 함(영수증이 없을 경우 활동비 지급 제한).

6. 평가기준 : 구체성, 적합성,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7. 지원 방법 : 09.07(월) ~ 09.20(일)까지 입학전형연구센터 이메일(khwao@knu.ac.kr)로 접수.

- * 본교 홈페이지 경과보고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 신청된 학생은 9.23(수)~24(목)에 개별 통보함.

8. 간접회 및 포상

- 가. 중간 간접회 : 2015. 11. 02(월) 예정

- 나. 사후 간접회 및 우수학생 시상 : 2016. 02. 22(월) 예정

9. 문의사항 : 입학처 정원미 입학신청관 031-201-3093, khwao@knu.ac.kr

인터뷰

“학생들의 밝은 미소가 버스를 움직이죠”

동대문 01번 마을버스 여기사

최병현 기자 chbh1027@knu.ac.kr

#. 매일 아침 회기역은 동대문 01번 마을버스를 타려는 승객들로 붐빈다.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을 때면 이 인파는 정류장을 벗어나 회기역 계단 위까지 이어지기 일쑤다. 서울캠퍼스 학생의 등교하는 물론 경희의료원을 찾는 환자, 그리고 직장인들의 출퇴근 수요가 몰려 버스 안팎은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이 전쟁통 속에서 나긋나긋한 목소리와 밝은 미소로 승객을 맞이하는 버스기사가 있다. 지난 25일, 평범한 세 아이의 엄마이자 지난 십 수 년 간 버스운전대를 잡아온 김진순(42) 기사의 하루를 엿봤다.

10년 동안 학원버스 운전을 해온 베테랑 운전수 김진순 기사는, 올해 3월 초 15학번 신입생이 갓 입학하던 때부터 마을버스 일을 시작했다. ‘새내기 마을버스 기사’ 김 기사는 새벽 4시에 하루를 시작한다. 아직 여명도 밝지 않은 새벽 4시 반에 이미 김

기사는 회기역에 출근해 있다. 버스 연료를 충전하고 청소를 하며 운행준비를 마친 후 동료 기사들과 커피를 마시며 잠을 쫓다 보면 시간은 어느덧 5시 55분, 첫 차가 승객을 실을 시간이다. 충분히 피곤할 법 할에도, 김 기사는 “몸은 고단하지만 승객을 맞이하는 재미에 하루하루가 즐겁다”고 말한다.

마을버스를 운전하면서 하루 중 가장 정신없고 바쁜 시간은 통학시간과 맞물리는 오전 9시와 10시 30분 전후다. 이 시간대에는 총 5대의 동대문 01번 마을버스 전부가 운행 됨에도 항상 만원이다. “한가한 시간대에는 반대차선의 마을버스랑 마주치면 기사들끼리 손짓으로 가볍게 장난을 칠 정도로 여유가 있지만, 이 시간대에는 서로 간에 운행상황을 알려주는 수신호를 보내며 일에만 집중한다”는 것이 김 기사의 설명이다.

“이 시간대에는 어찌나 바쁜지 회기역 정류장에 소위 ‘푸쉬맨’이 등장하기도 해요. 이 푸쉬맨은 본래 우리 회사 과장님이신데, 사실 걸모습은 무서워 보이지만 속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원래 성격이 좀 무뚝뚝하신 편이라, 승객 분들이 종종 오해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웃음)”

정신없이 오전 시간을 보내고 나면 기사마다 30분 가량의 쉬는 시간이 주어진다. 그리고 보통 이 시간대에 교대로 짐 심식사를 해결한다.



회기역에서 정문을 오가는 동대문 01번 마을버스는 우리학교 방문자들의 편리한 교통수단이다

짐 심 시간을 제외하고, 김 기사는 회기역에서 정문으로 이어지는 짧은 노선을 하루 18시간 동안 쉼 없이 반복해서 운행한다. 동대문 01번 마을버스는 서울시에서 가장 짧은 시내버스노선(0.8km)이다. 짧은 거리지만, 결코 만만하지 않다. 하루에도 같은 길을 수십 차례 왕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루는 동료기사가 하루에 보통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지 궁금해서 세어봤는데, 왕복 70번까지 세다가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짧은 노선을 반복적으로 다니니 지루할 것 같지만, 그래도 사람이 많아서 그렇게 심심하지 않아요.”

운전하는 것이 일이지만, 기본적으로 매일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일이기도 하다. 김 기사는 항상 인사하는 손님들은 얼굴을 기억하게 된다고 말한다. 손님들 중에는 매번 앞자리에 앉아 말을 걸어주거나 칭찬해주는 분들도 있다. 며칠 전에는 매번 인사하던 한 아가씨가 마스크팩을 선물해주더라며 환하게 웃는 그의 모습에서 생기가 묻어난다. 이런 소소한 승객들의 친절이, 그가 웃음을 잊지 않고 매일 운전대를 잡을 수 있게 만드는 힘의 원천이 아닐까.

하지만, 물론 모든 승객들이 김 기사에게 살갑기만 한 것은 아니다. 가령 김 기사는 버스에 오르는 승객 한 분 한 분에게 인사

를 건네지만 김 기사에게 응대를 해주는 손님들은 별로 없다.

“손님에게 인사를 건넸을 때 무표정한 얼굴로휙 지나쳐가시면, 아무래도 저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아프기도 하죠. 그래도 가끔 같이 밝게 인사해주시는 분을 만나면 기분도 좋아지고 다시 기운이 나는 느낌이에요.”

김 기사는 ‘무임승차’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가끔씩 무임승차를 시도하는 승객들이 있어서 곤란할 때가 많다는 것이다. “천 원짜리 지폐를 삼등분해서 내기도 하고 심지어 어린이용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김 기사는, 그래도 경희의료원을 찾는 아픈 어르신들이 단돈 몇 백 원이 모자라 버스 이용을 망설일 때에는 사장님 몰래 그냥 앉으시라고 하기도 한다며 멋쩍게 웃는다.

정신없는 오전에 비해, 학교와 병원의 일과가 끝나는 오후 시간은 비교적 여유롭다. 이 시간대에 동대문 01번 마을버스는 회기역 정류장의 비좁은 회차장 문제로 천천히 운행한다. 이때부터 막차 시간까지는 총 3대의 버스가 노선을 달리게 된다.

23시 30분이 되어 막차 운행을 종료하면 김 기사의 하루도 끝이 난다. 집에 들어가면 매번 자정이 넘는 시각. 격일로 일을 하는 김 기사는 비단 일 때 부족한 잠을 보충

한다.

“처음 동대문 마을버스 입사 때엔 여성이 하기엔 힘든 일이라며 거절당했지만, 사장님의 배려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료들과 일을 하는 지금은, 이해도 빠르고 센스도 있다며 칭찬도 많이 받아요.”

회사 내 분위기도 한결 부드러워졌다. 그 덕분인지 최근에는 같은 회사의 동대문 02번 버스에도 여성 기사를 채용해 연수 중이라고 한다.

김 기사가 승객들에게 바라는 점은 소박하다. “기사의 운전 실력을 믿어주시는 건 좋지만, 특히 어르신들은 손잡이를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은 수업에 늦을까 다급해 하지 말고 조금 일찍 나와서 여유롭게 버스를 이용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안전사고는 보통 다급한 마음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교통카드를 찍을 때에는 단말기 소리가 들릴 수 있게 이어폰 한쪽을 빼줬으면 좋겠어요.”

간선버스 기사가 되어 더 많은 시민과 만나고 싶다는 것이 김 기사의 소소하지만 큰 ‘소망’이란다. 당신, 오늘도 혹시 등하굣길에 동대문 01번 버스를 이용한다면, 잠시 귀에 끊은 이어폰을 빼고 김 기사가 건네는 인사에 환한 미소로 답해보는 것은 어떨까.



자원은 유한하지만 창의는 무한합니다

자원도, 기술도, 자본도 없었던 포스코가 글로벌 경쟁력 5년 연속 세계 1위의 철강사를 만들 수 있었던 원동력은 끝없는 도전정신이었습니다. 포스코는 지난날의 업적과 영광에 안주하지 않고 더 큰 세상,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언제나 창의적인 생각으로 POSCO the Great 를 향해 끝없이 도전할 것입니다.

위대함을 향해 갑니다
posco

